

중국 고대 신화에는 공존의 지혜 녹아 있다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 펴낸 김선자씨

중국신화를 연구하는 김선자씨(44, 연세대 중문과 강사)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서 2부만을 뽑아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를 펴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의 신화 가운데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동물·식물·돌 변형신화전설을 그 생성 배경과 원인, 숭배심리의 현상, 인간과의 관계, 내포하는 바 등으로 나눠 서술했다.

“논문을 쓰는 데는 정리된 중국신화 텍스트가 없어, 자료를 모으고 선택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소수민족의 신화는 대부분 구전 자료라서 그 자료들을 가리고 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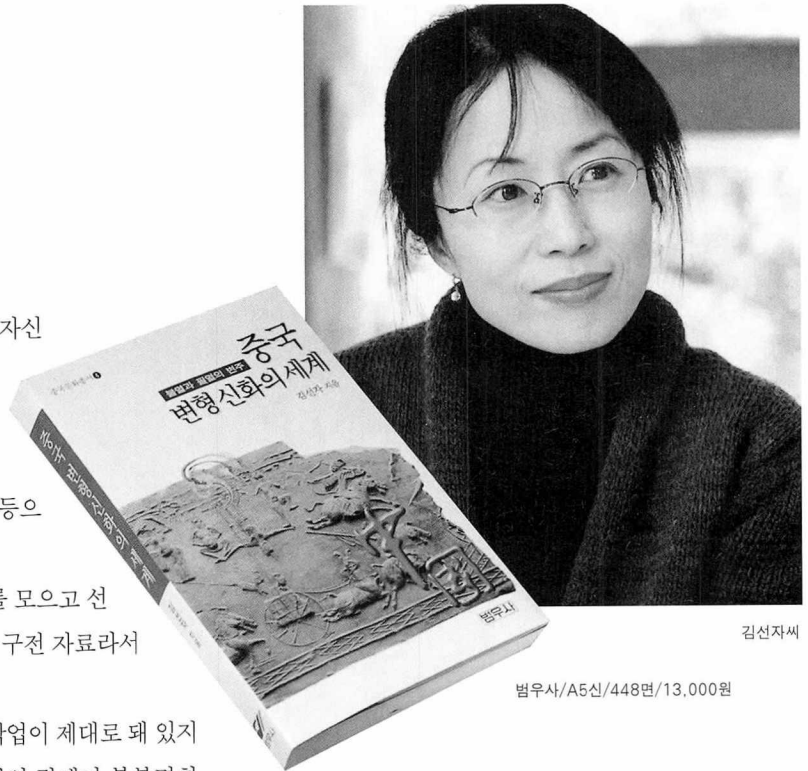
자료를 모으는 기초작업만도 품이 많이 들지만, 자료분류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중국신화를 해석하는 것이 한층 힘든 것은 신화와 전설의 경계가 불분명한 중국신화전설의 특징 때문이다.

“신화와 전설의 경계는 ‘역사’죠. 역사적인 인물에 얽힌 사건을 다루는 것은 전설이고, 그 이전 이야기는 신화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신화 속의 인물을 전설 속으로 들여오거나, 역사적인 실존인물을 신격화하는 상호텍스트화 과정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다, 전설이다 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변형은 인간의 영혼이 다른 사물을 통해 계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족과 비한족의 신화를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포용하는 생활방식에 이릅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신화의 특징은 서구신화의 대표적인 그리스신화와 구별되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리스신화는 대부분 신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인간에 대한 징벌 성격이 무척 강하다. 하지만 중국의 변형신화는 이루지 못한 소망, 사랑 등을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나 성취하는 이야기들로 그리스의 변형신화와 사뭇 다르다. 그리고 영혼과 몸에 대한 생각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변형신화를 보며 늘 놀라운 것은 현대 생태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돌 하나, 풀 한포기까지 생명체로 존중했고, 재미로 사냥하는 일 따위는 없었죠. 인간의 가치관은 인간의 것일 뿐이고, 동물과 인간은 형상만 다를 뿐 같은 비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 식물, 돌로 ‘변형’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다른 사물을 통해 계속되는 것이고, 이는 한족과 비한족의 신화를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포용하는 생



김선자씨

범우사/A5신/448면/13,000원

활방식에 이릅니다. 문명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그가 책에 풀어놓은 많은 이야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것은 이렇듯 ‘인정과 공존’이다. 또 수많은 신화를 소개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그가 내놓은 신화 읽는 방법, 즉 ‘존재와 현상, 특히 만들어진 현상 사이의 간극을 읽으라’는 충고는 깊이 새길 만하다.

“신화는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 담긴 메시지를 파악하려 애써야 합니다. 지배세력이 신화를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예는 가까운 곳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역사를 확장하고 권력을 유지하며, 자민족을 단합하는 도구로 신화를 이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는 중국신화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만큼 읽히는 글, 공부한 것을 제대로 풀어내기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했다. ‘읽었던 방법, 고답적 글쓰기’의 효용성을 부인하고, “불멸은 인간의 오랜 꿈이었다”로 논문 첫 구절을 삼은 데서 짐작할 수 있듯, 파격적인 그의 글쓰기는 이 책을 기존의 중문학 논문과 분명하게 구분 짓는다. 그는 훌륭한 사상, 좋은 내용일수록 쉽게 써야 한다는 믿음, 경박하고 하찮아질 수 있다는 창신(創新)의 단점을 경계하면서 발랄하고 도발적인 글쓰기를 계속할 것이다. —차정신기자

‘과정의 철학’ 가르치는 재미있는 대중철학서

〈피노키오의 철학〉 시리즈(1~2권) 펴낸 양운덕씨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처럼 허리가 구부정했을 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정의돼왔다. 사유하는 인간은 아름답고 그 모습은 빛난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사유? 그렇게 고상한 거 모른다며 도망가는 이가 더 많으리라. 섹스와 돈을 포함해 잡스러운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면 오늘날 인간존재는 참 빈약하다. 호모 사피엔스? 옛 그리스에나 가서 찾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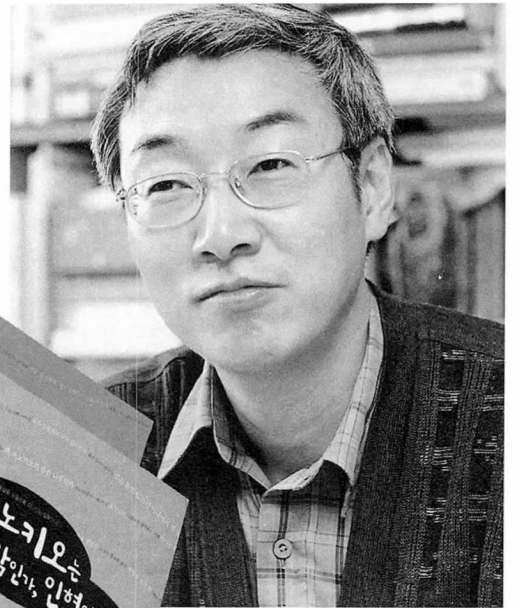
사유를, 그것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학문이 철학이다. 그런데 이 철학이 원자론이니 이데아니 다 뜯구름 잡는 소리고, 순수 이성이 어떻고 물자체가 어떻고 모두 골치만 아프다. 철학과 대중 사이에 가로놓인 이런 오해와 억측을 안타까워하던 철학자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이번에 〈피노키오의 철학〉 시리즈를 펴낸 양운덕씨(42)다. 대학에서 문화철학과 사회철학을 강의해온 그는, 그 외 남아도는 많은 시간을 대중들을 위한 철학특강에 바쳐왔다.

“농담으로 철학 과외선생이라 하고 다닙니다. 니체를 가르치기도 하고, 루소의 《고백록》 같은 고전문학 텍스트를 함께 읽기도 하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몇 반을 운영해왔는데, 이제 힘에 부쳐서 많이 줄였습니다.”

“총 11장으로 구성했는데, 각 장마다 딱딱한 단편소설을 쓴다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톡톡 튀게 유머도 섞고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썼죠. 그래도 딱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과외선생’이라 함은 수업이 ‘짹짹하다’는 말인 듯하다. 그는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양씨의 모습에 현대판 소크라테스의 그림자를 겹쳐서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일까? 일단 그가 펴낸 〈피노키오의 철학〉 시리즈를 들여다보자. 이 시리즈는 철학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철학함’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기존의 관념을 유쾌하게 뒤집어놓은 철학 입문서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철학사의 주요명제들을 일상생활의 주제들로 질문하고 추리하고 함께 고민하는 형식을 취한다. 선생과 제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결들여진 익살스러운 삽화까지 대하다보면 혹시 고등학생용 논술대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만큼 기존 철학사의 형식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총 11장으로 구성했는데, 각 장마다 딱딱한 단편소설을 쓴다는 기분으로 썼습니다. 톡톡 튀게 유머도 섞고 문학적인 표현도 많이 넣었죠. 그래도 딱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양운덕씨

창작과비평사/A5변형/218면 내외/각 7500원

양씨는 철학이 ‘답’(진리)을 찾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질문은 찾거나 찾아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땅을 파봐야 나오는 건 없다. 그에 따르면 질문은 고안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린왕자》에 나오는 모자 그림을 두고 “이 그림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판에 박은 대답밖에는 얻지 못한다.

“아름다운 사람을 봤을 때 끌리는 이유는 뭘까요. 본성이 그래서? 아니면 아름다움을 가르친 교육과 훈련 때문? 혹은 색을 밝혀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르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머리는 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말을 안듣지?’ 등 철학의 눈으로 볼 때 질문은 끝이 없죠.”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스승이 제자에게 던지는 가장 훌륭한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 한번 당해보라며 음흉하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 자신도 그 답을 알 길이 없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내용을 묻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리즈의 제1권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 제2권 《아킬레스는 왜 거북을 이길 수 없었을까?》를 보면 명확한 해답이 제시돼 있지 않다. 단지 난관을 헤쳐나가는 수많은 길 가운데 몇가지가 던져져 있을 뿐이다. —강성민기자